

대체에너지 사용효과 막대하다!

2002년 원유 수입대체효과 6648억원 ... CO2 배출도 909만톤 감축

2002년 대체에너지 보급량이 전년대비 18.9% 증가해 6648억원의 원유 수입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909만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대표 정장섭)이 최근 발표한 <2002년도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조사>에 따르면, 2002년 국내 대체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293만TOE(석유환산톤)로 전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1.4%를 차지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 1차 에너지 사용량의 3%로, 그리고 2011년까지는 5%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보급 가능성 및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기술개발 3대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도 조성한다.

또 대체에너지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로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성능평가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체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제품에 대한 인증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산자부는 신축하는 공공기관이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중이며, 설비의 대량보급과 지역에너지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안정적인 설비투자 및 시장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0>